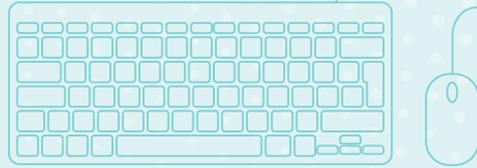


KIHA NEWS



협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산업보건분야 간담회 개최

협회는 6월 4일 14시 협회 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산업보건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

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의견과 법률에 대한 주요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 회원사인 SK하이닉스 등 7개 기업의 보건업무담당자, 보건관리자, 사업주와 5명의 산업보건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사업장의 의문사항이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 다양한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백헌기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보건 전문가와 기업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도 노동자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산업보건전문기관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오늘 간담회의 주요 내용과 고객사업장의 의견을 받아 정책건의 및 질의를 할 예정이다.





창원산업보건센터, 근·현대 산업보건 유물 발굴

창원산업보건센터 정보성 사내기자

창원산업보건센터는 6월 3일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근·현대문화유산 위생·보건 분야 목록화 조사」에 따른 산업보건 유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는 근·현대문화유산 중 위생·보건과 관련된 가치 있는 유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문화재 지원을 발굴하기 위

해 실시되었으며 위생·보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 조사 대상이다.

창원산업보건센터가 보유한 문화유산은 ‘흡기가스측정기’. 이 장비는 1970년대 초 일본의 노동과학연구소가 OTCA(일본해외기술협력단)를 통해 대한산업보건협회를 지원한 장비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의 조사자로 조사를 진행한 부산대학교의 현재환 교수는 “마산산업보건센터(현 창원산업보건센터)는 1970년대 당시 국내 최첨단의 산업보건 장비를 구비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장비는 그 당시 최신 장비로 여겨지던 기구 가운데 하나”라며 “이 장비는 한국에서 산업보건과 관련해 직업병을 진료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진료하는 방식이 전문화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기관들이 보건 관련 측정 도구나 문서 등의 역사적 가치를 간과하고 이사 등의 일이 발생할 때 마다 폐기 처분하여 대부분의 유물들이 남아있지 않지만,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 잘 보관되어 있는 곳 중 하나”라며 한국 산업보건의 귀중한 역사 자료를 잘 보존하고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경남지역본부, 남부산산업보건센터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 유관기관 공동 캠페인 참가

부산경남지역본부 박민승 사내기자

6월 4일 오전 6시 부산지하철 2호선 사상역 3번 출구 일원에서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 유관기관 공동 캠페인’에 ‘부산경남지역본부’와 ‘남부산산업보건센터’가 참여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현장 노동자의 산업안전 의식 향상과 산업안전보건역량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남부산산업보건센터),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경영자총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산업재해장애인협회 총 6개 유관단체의 관계자 50명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행사로 펼쳐졌다.

캠페인에 참석한 부산지역본부 조광현 본부장은 “매년 캠페인에 참석하여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의 의식 향상을 위해 산업보건기관을 대표하여 참석 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또한 유관기관과의 관계 형성 및 대한산업보건협회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1년 고충처리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대전충남북지역본부 임선숙 사내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성희롱 및 직장내 갑질, 괴롭힘 등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도 6월 9일 회차를 시작으로 10일 까지 총 3회에 걸쳐 고충처리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 하며 기관별 고충사항 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충북근로자건강센터에서 진행된 교육은 각 기관의 고충 처리위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이상태 경영총괄이사의 '직장 내 고충처리의 중요성과 고충처리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강연에 이어 고충처리 일련의 과정을 확인하는 역할극을 통해 피해자, 가해자, 참고인의 입장을 경험하는 실습형 교육이 진행되었다.



2021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관리팀 직무교육 실시

대전충남북지역본부 임선숙 사내기자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북산업보건센터에서 보건관리팀 직무교육이 진행됐다.

산업재해 대응방안-산업재해 실무 및 사례 중심으로 내외·부 노무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진행되었으며 각 교육회 차별 주제(분진보유사업장, 화학물질 보유사업장,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교대근무, 화학물질 보유사업장, 대형마트, 운송업, 사무행정, 소음보유사업장, 도급사업장, 물류택배업)에 따른 보건관리 실무지침 작성 및 토의를 진행했다. 이어 지침작성에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각각의 지도 요원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난 참여형 교육 진행 방식으로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었고, 수강생들은 1일 과정의 시간이 다소 부족할 정도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후기를 전했다.





대전충남북지역본부-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업무협약 체결

대전충남북지역본부 임선숙 사내기자

협회 대전충남북지역본부는 5월 28일 10시 대덕산업단지 관리공단 회의실에서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기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산업보건서비스 지원, 안전보건 문화 확산 및 수준향상을 위한 활동지원, 기타 약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대전충남북지역본부 변정식 본부장은 “대덕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산업보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며 대덕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산재 없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예방접종,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위탁업무, 관리감독자교육 등 적극적인 업무를 지원을 약속하였다.

대덕산업단지는 대전 문평동, 신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94만 평의 부지에 약 380개사(12,256명-20년 기준)가 입주해 있으며 생산액은 6조 8천억 원(20년 기준)에 달하는 산업단지로서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제주산업보건센터-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제주산업보건센터 강성준 사내기자

제주산업보건센터는 6월 17일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김영중 지사장, 고희배 경영복지부장, 김진국 재활보상부장과 대한산

업보건협회 제주산업보건센터 전일 센터장, 류주영 환경위생팀장, 이양순 보건관리팀장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산업재해예방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과 교류,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상호발전을 위한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본 협약을 통해 제주산업보건센터 전일 센터장은 “양 기관은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협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양 기관의 우호증진과 공동 발전 도모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현재 제주산업보건센터는 2019년 7월 1일자로 기존의 광주전남북지역본부 제주분소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센터로 개소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속적 사업 확장을 통해 제주의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증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제주산업보건센터 박형철 원장,
올해의 자랑스런 전남의대 동문 선정**

제주산업보건센터 강성준 사내기자

제주산업보건센터 박형철 원장이 5월 15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개교 77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2021년도 자랑스런 동문상 사회봉사 부문을 수상했다.

이 상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동문회가 헌신적인 국내외 봉사활동을 통해 동문의 귀감이 된 회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형철 원장은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에서 28대 병원장으로서 12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며 환자들의 주거개선과 인권회복 그리고 의료 질 향상을 이끌었던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립소록도병원은 1916년 한센병 환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병원으로 1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북산업보건센터-대경대학교
업무협약식 체결**

경북산업보건센터 김아름 사내기자

경북산업보건센터는 6월 17일 오전 11시 경산시에 있는 대경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대경대학교 최승욱 교무처장, 성춘희 간호학과장, 박미경 간호학과 교수, 이다겸 LINC사업단 단장과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의 강영철 센터장, 이상현 건강진단팀장, 운영지원팀 최효영 선임차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한 보건서비스 지원 ▲산업보건에 관한 학술활동, 정보교류 ▲간호학과 학생실습 관련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협력을 체결했다.



충북산업보건센터-청주시 배드민턴 협회 업무협약식 체결

충북산업보건센터 박진완 사내기자

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는 5월 28일 청주시 배드민턴 협회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사회공헌활동에 한발자국 더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청주시 배드민턴협회는 청주에서 규모가 큰 생활체육협의회 기관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주민들이 소속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해당 협약을 통하여 청주시 배드민턴협회에 소속된 회원들은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제공받으며, 대한산업보건협회는 헌혈, 교육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있어서 청주시 배드민턴 협회의 도움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각 단체와의 업무협약식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을 지킨 상태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충북산업보건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충북지역을 대표하는 경영자, 연구위원, 근로자, 지역주민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지역주민과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증진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